

'2020년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드라마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

MBC, 양주 야외촬영장을 관광지로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동두천시청에서 동두천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두천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획안 설명과 토론 및 의견 수렴 시간으로 진행 되었으며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안건혁 교수의 사회로 경희대학교 건축조경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 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허재완 교수, 대전대학교 도시공학과 김현수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이상

대 박사과 최용복 도의원, 박수호 시의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에 참석하였다. 이번 수립하는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으며 기존도시지역의 계획적 정비 방안과 종전 비도시 지역의 계획적 관리 방안 및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동두천의 지역 발전 방안을 검토하여 계획하게 되며 남북 관계개선, 미군 공여지반환등 지역적 변화를 활용한 통일정책 지원도

시, 도시자립기반의 확충 및 자연 환경에 순응하는 자족전원도시, 주말관광 휴양도시, 경기북부지역인 파주·양주·연천·포천 일대의 교통 및 물류 유통 중심의 도시로 개발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최용수 동두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2020년의 미래상이 담긴 소중한 계획이니 만큼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고연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paek1031@nate.com

국내 최초의 드라마파크인 MBC '대장금' 야외촬영장이 테마파크로 양주에 만들어져 지난 6일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개방했다. MBC는 지난 2일 "대장금 테마파크"는 국내 최초로 드라마 촬영지를 본격적인 테마파크로 만든 곳"이라며 "아시아 지역의 많은 시청자들에게 우리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한류'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2천평의 대지 위에 건립된 '장금' 테마파크는 주황색 장승이 양주시 주내을 민승동에 위치한 오픈세트 촬영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복원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전, 대비전, 수라간 등 23개 시설로 구성된 세트장에는 촬영 당시의 소도구와 의상 등이 전시되며, 명장면 하이라이트 영상과 연출자가 들려주는 역사이야기, 음식자문을 담당했던 한복려 원장의 궁중음식이야기 영상, N영상 등이 상영된다. 또 연출자인 이병훈 PD의 대본도 전시된다.

또 가마타기와 전통의상 입어보기, 후호놀이, 곤장맞기, 활시위 당겨보기 등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코너가 있으며, 궁중음식 모형, 궁중의상 등이 전시된다. 한편 6일 오후 3시부터 열린 개장식에는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노성대 방송위원회 위원장, 유건환한국관광공사 사장, 손하규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대장금'의 이병훈 PD 등 제작진과 지진희, 여운계, 견미리, 양미경, 홍리나, 임현식 등 연기자들이 참석하여 분위기를 돋웠다.

현재 드라마 '대장금'은 일본 NHK방송의 위성채널에서 방영되면서 꾸준한 사랑을 얻고 있어 일 본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인한 관광 수입 창출이 기대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입장료는 성인 5천원, 어린이 3천원이다. 기타문의는 MBC사업국 (02) 368-1616, (031)849-5140으로 하면 된다. 백성주 기자 paek1031@nate.com



국내 최초의 드라마파크인 MBC '대장금' 야외촬영장이 테마파크로 양주에 만들어져 지난 6일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개방했다.

동두천시, 설해대비 비상근무체제 돌입

'내집 내접포 앞은 내가 쓸기' 운동 참여당부

동두천시는 겨울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2005년 3월15일까지를 설해대책기간으로 정해 강설에 대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각종 시설장비를 비롯해 눈이 내릴 경우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내집 내접포 앞은 내가 쓸기' 운동에 솔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심 외곽 이면도로 및 마을 진입로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사 용하는 트랙터에 제설기(20대)를 부착, 제설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체제를 갖춰 놓았다. 특히 결빙으로 인해 교통두절이

예상되는 모든 고갯길 및 교차로 등에 대해서는 적사함을 비치했고 주요도로에 대해서도 모니터 요원을 지정해 연락망을 구축한 상태이다. 또한 설해대책기간중 24시간 상 황실을 운영해 적설량에 따라 단계 별(1단계 3cm 내외 강설, 2단계 5cm 이상 강설, 3단계 10cm 이상 강설)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유관 기관인 동두천소방서 인근 군부대와 함께 전담 제설구간을 지정, 설 해로 인한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백성주 기자 paek1031@nate.com

고구려유적 관광자원으로 개발

연천군, 고구려유적 종합정비 추진



호고루성은 연천지역의 대표적인 고구려유적으로 오는 2007년까지 발굴, 보존,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연천군은 지난 7일 지역의 대표적인 고구려 유적 호고루성, 당포성, 은대리성에 대해 발굴조사와 보존·정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

다. 군은 오는 2007년까지 사업비 199억6천여만원을 들여 장남면 호고루성과 전곡읍 은대리의 은대

산성, 그리고 미산면 동이리의 당포성지를 종합정비하기로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기본방향이 설정됨에 따라 군은 우선적으로 내년에 2차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지의 성격규명 및 정비방향을 수립하고 문화재 보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유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성곽 주변정비를 위한 진입로를 만들고 3개 성곽을 연계하는 종합정비계획을 세우고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보존과 활용을 위한 성곽복원 및 유적관 건립을 통하여 관광자원으로 이용한다는 방안이다. 연천지역의 고구려유적을 대표 하는 이들 성곽은 독특한 강안평지성으로 학술적·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그동안 문화재로 지정해야 하겠다고 학계는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기념물로 지정, 1차 발굴조사후 방치해, 현재 수풀만 무성한 상태이다.

특히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가 국내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고구려유적 정비 계획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성주 기자 paek1031@nate.com

포토뉴스



동두천, 연말 불우이웃돕기 일일차집

동두천시 생연2동 새마을 남·여 지도자협의회는 지난 3일 연말불우이웃돕기 일일차집 행사를 가졌다. 동사무소 2층 문화관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날

행사의 수익금은 2005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경로당 중화요리 대접, 독거노인 반찬전달 등의 사업기금으로 쓰일 전망이다. 백성주 기자 paek1031@nate.com



일선 파출소장의 가슴 따뜻한 온정

일선 파출소장이 사비를 털어 관내 노인들을 초청, 흥겨운 경로잔치를 여는 등 노인 공경에 앞장서 차가워진 날씨 속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느껴졌던 경찰관에게 대접을 받는 것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흥겨운 하루를 보냈다. 6년여동안 해군 하사관으로 복무하다 지난 1977년 경찰에 투신, 내년 6월 정년퇴직을 앞둔 박 소장은 아침 일찍 관내 노인정을 찾아가 노인들을 챙기면서 하루일과를 시작한다. 이같은 박 소장의 효사상 실천은 경찰생활 30여년간 누적된 피로와 과로로 찾아온 당뇨와 고혈압이라는 병마와 싸우면서 행해지는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이기에 더욱 값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백성주 기자 paek1031@nate.com

이날 노인잔치는 박 소장이 사비 100여만원을 들여 돼지 1마리와 떡 2말, 다과와 술 등 푸짐한 음식을 마련한 것이다. 참석한 노인들은 평소 멀게만

이날 노인잔치는 박 소장이 사비 100여만원을 들여 돼지 1마리와 떡 2말, 다과와 술 등 푸짐한 음식을 마련한 것이다. 참석한 노인들은 평소 멀게만

대추나무연회 연 전시회

미술작품, 조형물 등 30여점 전시

연천군 대추나무 연회(대표 박차남)는 3일 연천문화원에서 제16회 대추나무 연 전시회를 가졌다.

지난 89년 설립된 대추나무 연회는 그동안 15회의 전시회를 통해 4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등 대체로 미술분야의 활동이 부진한 연천 관내에서 유일하게 개최되는 전시회로 미술창작 인구의 지변확대는 물론 아동 및 학생들의 미술창작에 대한 동기유발로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백성주 기자 paek1031@nate.com

오는 9일까지 7일간 전시되는 이번 행사는 회원 12명이 한해 동안 준비한 미술작품, 조형물 등 30여 점을 전시하게 된다.

유통마진 NO! 거품을 뺀 생산자 → 소비자 직거래

파격적인 가격! 최고급 한방약재를 먹여 육질이 최고!

멧돼지(野猪) 고기의 효능

<동의보감에 의한 자료>

성질은 고르고 맛은 맵고 달으며 독이 없으니 귀주와 간병 및 약동풍과 어린 아이의 감기와 객오 및 천조를 치료한다. 담속에 황이 있으니 잘 갈아서 물에 타서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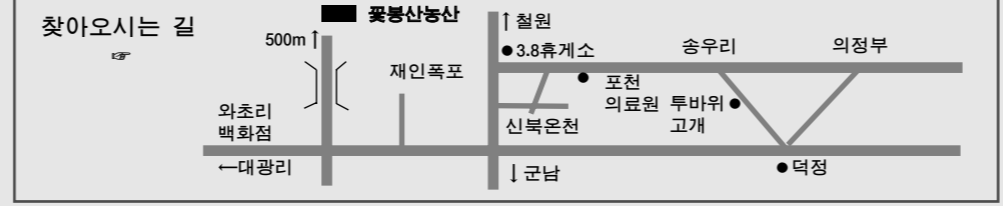
① 육(肉) : 맛이 달고 독이 없으니 기부(肌膚)를 보호하고 장풍(腸風)으로 사혈(瀉血)하는 것을 주로 치료한다.

② 지(지방) : 얼굴 색을 윤택하게 하고 풍종(風腫), 독창(毒瘡) 개선과 부인이 젖이 나오지 않는 데 달여서 술과 같이 먹으면 젖이 바로 나오고 한 부인이 다섯 아이를 기른다고 한다.

③ 담(膽·쓸개) : 약열(惡熱)을 치료한다.

④ 치(齒·이빨) : 약에게 물린 상처를 치료하니 불에 태워서 먹는다.

⑤ 외신(外腎·성기) : 붕중대하(崩中帶下)와 장풍혈리(腸風血痢)를 치료하니 가죽과 불에 태워서 먹는다.



- ▶ 멧돼지 (60~80근) 3십만
- ▶ 토종멧돼지 (60~80근) 3십만
- ※ 바베큐 전문 음식점 문의 상담
- 작업비별도, 운송비 별도-



주 소 : 경기도 연천군(읍) 옥산리 24
전 화 : 031-834-1099
휴대 폰 : 011-9033-1090
018-310-2113

한방 토종돼지 멧돼지 분양 판매
꽃봉산농장